

제1장 정 당

1. 서론

1) 정당정치 의 의

오늘날 민주정치를 정당정치라고도 한다. 이는 현대 민주정치가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하는 대의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그들의 의사를 정책에 가장 잘 반영해 줄 후보자를 지지하며,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이 동일한 사람들이 정당을 통해 입후보한다면 국민들이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기에 이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정치의 성패는 민주적 정당의 구성과 활동에 의해 결정된다고도 볼 수 있다.

2004년 3월에 새롭게 개정된 정당법 제2조에는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고 하고, 또 제3조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고 하여 정당과 정당활동의 의의를 규명하고 정당이 중앙 정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도 역할을 담당함을 엿보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정당은 여론형성 및 조직, 국민 대표자 배출, 국민들의 정치 사회화, 정부와 의회 연결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또한 요구되고 있다.

2) 지방자치와 정당

조선시대의 사색당파로 나뉘어 대립한 붕당정치, 조선 순조 이후 세도정치 혹은 족벌 정치, 대한제국 개화기에 나타난 수구파와 개화파의 소용돌이 속의 사대당과 독립당을 중심으로 한 양측의 대결은 정당정치의 한 단면이다.

그러나 이들은 정당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 여론을 의식하거나 지지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기에 오늘날 민주적 정당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일제침략기에는 정당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많은 애국애족 인사들이 정치성을 띤 각종 단체들을 결성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투쟁을 전개하여 오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우후죽순처럼 수많은 군소정당들이 난립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우리나라에도 비로소 정당의 역사가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한 우리나라 정당은 수많은 시행착오 내지는 실험적 진화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해방 직후에 몇몇 명망가들이 이끌었던 초기 정당들은 국민들로부터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은 정당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선택과 활동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정당보다 무소속이 더 많은 지지를 받기도 하였다.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정당이 현실적·정치적 선택과 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1954년 실시된 제3대 국회의원 선거라고 한다. 자유당과 민주당의 각 후보가 각자의 인물 됴됨이와 함께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정강을 들고 나오면서 지역민들에게 정당의 존재와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면서부터라고 한다. 그러다가 정당이 지역에 상시적인 조직을 갖고 보다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1962년 정당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이때에 정당은 중앙당과 함께 전국 선거구 숫자의 일정 비율 이상의 지구당을 지녀야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이다.

또한 1995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 및 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거하면서부터 지방자치가 본격화되자 정당활동은 중앙 정치에서 지방 정치에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되었다. 해가 갈수록 지역 주민들은 지구당제도를 통해 정당 참여가 확대되고, 민주정치가 사회 전반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지구당 제도는 지역 주민들의 정치 참여 확대와 상향식 공천 등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온갖 정치적 부패 및 고비용 저효율 정치 등 부작용이 일어나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새로 개정된 정당법으로 지구당 제도가 폐지되었다.

이제 정당은 중앙당과 광역 단위의 시·도당이 있어 지역주민들의 정당 활동 참여는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되었다. 우리 지역에는 각 정당들의 과거 지구당 대신 당원협의회 혹은 연락소가 있으나 본래의 정당 활동의 효율적 역할이나 열기를 기대하기란 어렵게 되어 있다.

다음은 우리 지역에서 정당과 정당활동에 대하여 시기별로 기술하였는데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였다

2. 이승만 정권기의 정당(1948~1960)

번호	정 당	대 표 자	등 록 일	비 고
1	대 한 국 민 당	신 익 희	1948. 11. 12	
2	민 주 국 민 당	지 청 천	1949. 2. 10	
3	자 유 당	이 승 만	1951. 12. 17	
4	조 선 민 주 당	조 만 식	1953. 1. 13	
5	노 농 당	전 진 한	1955. 2. 15	
6	민 주 당	신 익 희	1956. 1. 24	
7	진 보 당	조 봉 암	1956. 11. 10	
8	민 주 혁 신 당	조 헌 식	1957. 10. 5	
9	통 일 당	김 준 연	1957. 11. 18	
10	기 독 사 회 민 주 당	박 태 섭	1960. 5. 15	
11	한 국 독 립 당	조 한	1960. 6. 27	
12	민 주 사 회 당	이 을 규	1960. 7. 6	

이승만 정권기의 초기에는 정당조직보다는 거국적으로 조직된 대동청년단의 세포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정치성 단체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도 제헌국회의원 선거 당시(1948. 5. 10)에는 이렇다 할 정당이 없이 대동청년단, 조선민족청년단, 대한독립민족회에서 각각 1명씩 그리고 무소속에서 4명 등 7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대동청년단의 임석규(林奭奎)가 당선되었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 (1950. 5. 30) 당시에도 우리 지역의 정당 활동은 두드러지지 못하여 14명의 후보가 난립하였으나 대한국민당의 백남진, 국민당의 김승원 등 2명을 제외하고는 12명의 후보 모두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였고 그 중 무소속의 김영선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3대 국회의원 선거(1954. 5. 20) 때 부터는 자유당의 조직이 크게 확대되어 우리 지역에서도 그 활동이 활발하였다. 자유당의 김상억과 무소속 3명이 경합한 선거에서 무소속의 김영선이 당선되었는데 1956년 1월 24일 민주당이 출범하자 김영선이 이에 입당함으로써 우리 지역에도 자유당과 민주당 양대 정당이 경쟁하게 되었다.

제4대 국회의원 선거(1958. 5. 2)에는 자유당의 조직이 세포화되어 각 마을단위까지 조직 활동이 활발해지고 민주당 역시 상당한 입지를 확보하여 자유당의 이원장, 민주당의 김영선, 그리고 무소속 2명(1명은 사퇴) 등이 열띤 경합을 벌여 자유당의 이원장이 당선되었다.

3. 장면 정권기의 정당(1960~1961)

번호	정 당	대 표 자	등 록 일	비 고
1	민 주 당	곽 상 희	1956. 1. 24	
2	한 국 청 년 당	박 대 완	1949. 2. 10	
3	신 민 당	백 남 훈	1960. 11. 8	
4	사 회 대 중 당	김 달 호	1960. 11. 18	
5	사 회 당	우 문	1960. 11. 26	
6	공 화 당	이 윤 영	1961. 1. 12	
7	통 일 사 회 당	이 동 화	1961. 4. 3	

이승만 정권은 독재정치와 3·15부정선거를 자행하다 끝내 4·19 혁명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때 자유당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정당들이 출범하여 우리나라 정당정치는 재편되었다.

제5대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제였는데 1960년 7월 29일 실시한 민의원선거에 우리 지역에서는 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 출마하여 민주당 김영선이 당선되었다.

한편 참의원선거는 도단위에서 6명을 선출하였는데 24명의 후보들이 경합하여 민주당 2명, 사회대중당 1명, 자유당 1명, 무소속 2명이 당선되었다.

4. 박정희 정권기의 정당(1963~1972)

번호	정 당	대 표 자	등 록 일	소 멸 일
1	민 주 공 화 당	정 구 영	63. 5. 10	80.10.27
2	추 풍 회	오 재 영	63. 8. 3	71. 5. 3
3	민 주 당	박 순 천	63. 8.17	65. 5.11
4	자 유 민 주 당	김 준 연	63. 9. 9	64.11.27
5	정 민 회	변 영 태	63. 9. 9	71. 5. 4
6	신 흥 당	장 이 석	63. 9.13	65. 2. 1
7	국 민 의 당	김 병 로	63. 9.13	64.10. 5
8	신 민 회	성 보 경	63. 9.26	73. 7. 2
9	자 유 당	장 택 상	63.10. 9	70. 1.26

10	보 수 당	김 명 윤	63.10.28	66. 2.18
11	한 국 독 립 당	김 흥 일	63.10.30	70. 2. 3
12	민 중 당	윤보선·박순천	65. 5.11	67. 2.11
13	신 한 당	윤 보 선	67. 5.30	67. 2.11
14	신 민 당	유 진 오	67. 2.11	80.10.27
15	대 중 당	서 민 호	67. 3.22	73. 7. 2
16	통 일 사 회 당	이 봉 학	67. 4. 7	73. 7. 2
17	자 민 당	이 중 윤	67. 4.27	71. 5. 3
18	민 주 당	조 재 천	67. 5. 6	70.12.15
19	국 민 당	윤 보 선	71. 1.23	73. 7. 2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로 정당과 사회단체가 해산되고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다시 1962년 12월 31일 정당법을 개정 공포함으로써 정당활동이 재개되었다. 6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은 선거구도 보령군과 서천군을 합하여 충남 제6선거구로 명명, 자유당의 윤세억, 신민회의 신영석, 자유민주당의 백기홍, 국민의당의 나희집, 민주당의 이영우, 민정당의 김옥선, 추풍회의 박창규, 민주공화당의 김종갑 등이 정당 활동을 하였고 1963년 11월 26일 선거에서는 김종갑 후보가 당선되었다.

○ 제7대 국회 때의 정당활동 상황

보령군과 서천군이 합하여진 충남 제6선거구에서는 자유당의 안병철, 신민당의 김옥선, 민주공화당의 이원장, 한국독립당의 노승삼, 통일사회당의 박창규 등이 정당 활동을 하였고 1967년 6월 8일 선거에서는 이원장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낙선된 김옥선 후보가 1967. 6. 15 대법원에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1967. 12. 12~13 양일간 법원의 검표결과 김옥선 후보가 51,440표를 얻고 이원장 후보가 51,419표를 얻어 21표를 더 얻은 김옥선 후보가 1968년 6월 3일 승소판결로 당선이 반복되었다.

○ 제8대 국회 때의 정당활동 상황

1969년 1월 23일 법률 제2089호로 개정된 정당법에 의하여 선거구는 보령군을 단위로 하는 충남제8지구선거구로 명명되어 민주공화당의 최종성, 신민당의 신준희, 국민당의 윤세억 등이 정당활동을 하였으나 1971년 5월 25일 선거에서 최종성 후보가 당선되었다.

5. 유신체제하의 정당(1973~1980)

번호	정 당	대 표 자	등 록 일	소 멸 일
1	민 주 공 화 당	박 정 희	63. 5. 10	80.10.27
2	신 민 당	김 영 삼	69. 9. 22	80.10.27
3	민 주 통 일 당	양 일 동	73. 1. 30	80.10.27
4	통 일 사 회 당	안 필 수	74. 1. 21	80.10.27

○ 제9대 국회 때의 정당활동 상황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선언(10월 유신)을 발표하여 국회를 해산한 후 정당 활동을 중지케 한 후 1972년 12월 27일에는 유신헌법의 공포로 정당활동이 재개되고 선거구제가 중선거구로 되어 보령군과 서천군, 부여군 3개군이 합하여 충남 제5선거구로 명명되며 1973년 2월 27일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의 김종익, 신민당의 김옥선, 민주통일당의 신준희, 무소속의 한광석 등이 후보로 나섰으며, 김종익 후보와 김옥선 후보가 당선되었다.

○ 제10대 국회 때의 정당활동 상황

보령군, 서천군, 부여군 3개군을 합한 충남제5선거구에서 1978년 12월 12일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공화당의 김종필, 신민당의 조중연, 민주통일당의 윤세민, 무소속의 김형욱, 김홍조, 나필열, 백남치, 신준희, 한상필 후보 등이 출마하였고, 김종필 후보와 조중연 후보가 당선되었다.

6. 전두환 정권기의 정당(1980~1987)

번호	정 당	대 표 자	등 록 일	소 멸 일
1	민 주 정 의 당	전 두 환	81. 1. 17	90. 2. 15
2	민 주 한 국 당	유 치 송	81. 1. 21	88. 4. 29
3	민 주 사 회 당	고 정 훈	81. 1. 23	82. 3. 29
4	민 권 당	김 의 택	81. 1. 24	85. 2. 15
5	한 국 국 민 당	김 종 철	81. 1. 24	88. 4. 29
6	원 일 민 주 당	박 재 원	81. 1. 26	81. 3. 28
7	신 정 당	김 갑 수	81. 1. 31	82. 3. 29
8	자 유 민 족 당	용 태 영	81. 1. 31	85. 2. 15
9	사 회 당	김 철	81. 2. 15	81. 3. 28

10	한 국 기 민 당	이 민 국	81. 3. 5	81. 3. 28
11	통 일 민 족 당	양 덕 인	81. 3. 6	81. 3. 28
12	근 로 농 민 당	이 규 정	81. 3. 7	85. 2. 15
13	신 민 주 당	염 종 훈	81. 8. 14	88. 4. 18
14	신 정 사 회 당	고 정 훈	82. 3. 29	86. 5. 28
15	신 한 민 주 당	이 민 우	85. 1. 22	88. 4. 29
16	사 회 민 주 당	김 철	85. 7. 15	88. 4. 29
17	기 독 성 민 당	진 복 기	85.11. 13	88. 4. 29
18	민 중 민 주 당	유 한 열	86. 9. 5	87. 5. 2
19	제 3 세 대 당	한 영 수	87. 3. 13	88. 4. 29

○ 제11대 국회 때의 정당활동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해 5월 31일 설치되어 정당활동이 중지되었으나 1980년 10월 27일 개정된 헌법이 공포됨으로써 정당활동이 재개되어 보령군, 서천군, 부여군 3개군이 합한 충남제6선거구에서는 민주한국당의 조중연, 한국국민당의 임연상, 민권당의 김홍조, 민주사회당의 김덕현, 민주정의당의 이상익, 무소속의 윤상배 등이 정당활동을 하였으나 1981년 3월 25일 선거에서 조중연 후보와 이상익 후보가 당선되었다.

○ 제12대 국회 때의 정당활동

보령군, 서천군, 부여군 3개군을 합한 충남 제6선거구에서는 민주한국당의 조중연, 한국국민당의 임연상, 근로농민당의 이상일, 민주정의당의 이상익, 신한민주당의 김옥선, 무소속의 채의송 등이 정당활동을 하였으나 1985년 2월 12일 시행한 선거에서 이상익 후보와 김옥선 후보가 당선되었다.

7. 노태우 정권기의 정당(1988~1992)

번호	정 당	대 표 자	등록일	소멸일
1	민 주 정 의 당	노 태 우	81. 1. 17	90. 2.15
2	민 주 한 국 당	유 치 송	81. 1. 21	88. 4.29
3	한 국 국 민 당	이 만 섭	81. 1. 24	88. 4.29
4	신민주당(물민당)	염 종 훈	81. 8. 14	88. 4.18
5	사 회 민 주 당	김 철	85. 7. 15	88. 4.29
6	기 독 민 주 당	진 복 기	85.11. 13	88. 4.29
7	제 3 세 대 당	한 영 수	87. 3. 13	88. 4.29

8	통 일 민 주 당	김 영 삼	87. 5. 6	90. 2.15
9	일 체 민 주 당	김 선 적	87. 6. 19	88. 4.18
10	한 주의 통일한국당	신 정 일	87.11. 5	88. 4.29
11	신 민 주 공 화 당	김 종 필	87.11. 11	90. 2.15
12	평 화 민 주 당	김 대 중	87.11. 13	91. 9.16
13	정 의 평 화 당	김 상 철	88. 3. 11	88. 4.29
14	민 중 의 당	정 태 윤	88. 3. 11	88. 4.29
15	한 겨 레 민 주 당	예 춘 호	88. 4. 6	91. 3.13
16	민 주 자 유 당	노태우·김영삼·김종필	90. 2.15	97.11.24
17	민 주 당	이 기 택	90. 6.18	91. 9.16
18	공 명 민 주 당	고 태 만	90. 8. 3	92. 3.30
19	민 중 당	이우재·김상기·김탁중	90.11.19	92. 3.30
20	민 주 당	김 대 중	91. 9.16	95.12.21
21	통 일 국 민 당	정 주 영	92. 2.10	94. 7. 8

○ 제13대 국회 때의 정당활동 상황

거국적인 민주화운동이 밑거름이 되어 6.29선언이 이루어졌고 정당법도 개정되어 중선거구제에서 다시 소선거구제로 바뀌어져 1986년 1월 1일자 보령군에서 분리독립된 대천시와 보령군이 합한 1개선거구로 민주정의당의 이대희, 통일민주당의 김경두, 평화민주당의 이시우, 신민주공화당의 김용환 등이 정당활동을 하였으나 1988년 4월 26일 선거에서 김용환 후보가 당선되었다.

○ 6.29민주화 선언 이후의 정당활동

여야합의의 단일 개헌안을 마련하여 1987년 10월 12일 국회에서 재적의원 272명 중 254명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의결되었으며, 10월 27일 시행한 국민투표에서 78.2%의 투표율과 93.1%의 찬성을 얻어 확정되었다. 이것이 제9차 헌법개정이고, 제6공화국의 출범이다.

그 후 개정된 헌법에 따라 1987년 12월 16일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1988년 4월 26일 시행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의 현상이 이루어졌다. 민정당 총재인 노태우 대통령과 민주당 총재인 김영삼, 공화당 총재인 김종필이 대화와 타협으로 참다운 민주 발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3당 합당을 하여 민주자유당을 출범시켰고 정국은 거여소야로 바뀌어졌다. 민주자유당은 창당 이후 내부적으로는 내각책임제 개헌 또는 계파간의 불협화음 등으로 탈당 의원이 속출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정치 사상 처음으로 여야 3당이 합당을 1990년 1월 22일 청와대에서 발표하여 정계를 개편하고 1990년 2월 9일, 3당 합당회의를 열어 민주자유당이 창당 출범하였다. 사회발전에 못미치는 지난날의 정치를 개혁하기 위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참다운 민주발전을 위한 정치, 성숙한 정치를 하겠다고 여소야대를 거역소야로 바꾸었다.

○ 14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 뜻과는 달리 인위적으로 거역소야(巨與小野)로 개편된 정치 판도 속에서 치러진 1992년 3월 24일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는 민자당이 과반 의석에 못미쳐 다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되었다. 한편 이때 우리 지역 대전시·보령군선거구 정당 활동은 민주자유당에 김용환, 통일국민당에 박창규, 민주당에 백성남, 신정당 이문규 등이 경쟁하였으나 민주자유당의 김용환 후보가 당선되었다.

8. 김영삼 정권기의 정당(1993~1998)

○ 김영삼 정권 출현과 지방자치 시대의 도래

1993년 2월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우리 지역의 정당활동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1991년에는 지방의 기초의회의원 선거와 광역의회의원 선거가 새롭게 치러지고,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 4대 선거(기초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지방의 정당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게 되었다. 당시 지방자치 선거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본 책자 선거 편을 참고로 한다.

○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1996년 4월 11일 치러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는 21세기를 향한 국민의 의사를 듣는 역사성을 갖는 선거였고, 정치개혁과 관련한 통합선거법이 마련된 뒤의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는 선거였다. 이 때 우리 지역 보령시선거구 정당활동은 신한국당에 최일영, 자유민주연합에 김용환, 무소속에 안갑원이 경쟁하였으나 자유민주연합의 김용환이 당선되었다.

김영삼 정권기의 정당

번호	정 당	대 표 자	등 록 일	소 멸 일
1	민 주 자 유 당	노태우·김영삼·김종필	90. 2.15	97.11.24
2	민 주 당	김 대 중	91. 9.16	95.12.21
3	통 일 국 민 당	정 주 영	92. 2.10	94. 7. 8
4	신 정 치 개 혁 당	박 찬 중	92. 3. 4	94. 7. 8
5	진 리 평 화 당	허 경 영	92.11. 6	
6	친 민 당	권 정 수	92.11.19	96. 4.13
7	대 한 정 의 당	이 병 호	92.11.19	94. 2.15
8	새 한 국 당	이 중 찬	92.11.19	95. 3. 7
9	대 한 민 주 당	류 준 하	93.10.20	96. 4.13
10	신 민 당	김동길·박찬중	94. 7. 8	95. 5.31
11	정 명 당	권 천 문	95. 1.13	
12	자 유 민 주 연 합	김 중 필	95. 4. 3	95. 5.31
13	자 유 민 주 연 합	김 중 필	95. 5.31	
14	신 민 당	임 춘 원	95. 6.27	97. 5. 6
15	새 정 치 국 민 회 의	김 대 중	95. 9.11	
16	개 혁 신 당	장을병·홍성우	95.11.29	95.12.21
17	통 합 민 주 당	이택·김원기·장을병	95.12.21	97.11.24
18	무 당 파 국 민 연 합	한 병 채	96. 3.18	96. 4.13
19	2 1 세 기 한 독 당	이 시 찬	96. 3.25	96. 4.13
20	공 화 당	허 경 영	97. 9. 4	
21	민 주 국 민 연 합	이 인 수	97. 9. 4	98. 5.21
22	국 민 신 당	이 만 섭	97.11.10	98. 9.24
23	바른나라정치연합	이 한 식	97.11.19	99. 2.12
24	한 나 라 당	조 순	97.11.24	
25	건 설 국 민 승 리 2 1	권 영 길	97.11.24	

9. 김대중 정권기의 정당(1998~2003)

○ 김대중 정권 출현과 16대 국회의원 선거

1998년 2월 김대중 정권이 출현하고 2000년 4월 13일 16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이때 우리 지역은 서천군과 하나의 선거구로 합쳐지고 한나라당에 안홍렬, 민주당에 김명수, 한국신당에 김용환, 자민련에 이공규, 무소속에 김옥선, 나소열이 경쟁하였으나 한국신당의 김용환이 당선되었다.

김대중 정권기의 주요 정당

번호	정 당	대 표 자	등 록 일	소 멸 일
1	공 화 당	허 경 영	97. 9. 4	
2	민 주 국 민 연 합	이 인 수	97. 9. 4	98. 5.21
3	국 민 신 당	이 만 섭	97.11.10	98. 9.24
4	바른나라정치연합	김 한 식	97.11.19	99. 2.12
5	한 나 라 당	조 순	97.11.24	
6	건설국민승리21	권 영 길	97.11.24	
7	애 국 번 영 당	손 정 수	98. 6. 4	
8	청 년 진 보 당	최 혁	98.12. 9	

10. 노무현 정권기의 정당(2003~2008)

○ 노무현 정권 출현과 17대 국회의원 선거

2003년 2월 노무현 정권이 출현하고 2004년 4월 15일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때 우리 지역 보령시·서천군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의 김태흠, 열린우리당의 박익규, 민주당의 김명수, 자민련의 류근찬, 무소속의 신준희, 이공규가 경쟁하였으나 자민련의 류근찬 후보가 당선되었다.

노무현 정권기의 주요 정당

번호	정당명(약칭)	대 표 자	등록연월일	소 멸 일
1	한 나 라 당	강 재 섭	97. 11. 24	
2	민 주 당	한 화 갑	00. 01. 20	
3	민 주 노 동 당	문 성 현	00. 05. 24	
4	천주평화통일가정당	곽 정 환	03. 03. 17	
5	열 린 우 리 당	김 근 태	03. 11. 17	
6	기 독 민 주 복 지 당	최 수 환	04. 03. 26	
7	국 민 중 심 당	신국환·심대평	06. 01. 27	
8	시 민 당	최 용 기	06. 04. 17	
9	희 망 사 회 당	신 석 준	06. 04. 25	
10	선 진 한 국 당	장 석 창	06. 05. 03	
11	새시대참사람연합	전 관	06. 05. 22	
12	자 유 평 화 당	이 태 희	06. 10. 10	

11. 이명박 정권기의 정당(2008~)

○ 이명박 정권 출현과 18대 국회의원 선거

2008년 2월 이명박 정권이 출현하고 2008년 4월 9일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이 선거는 46%라는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하여 국민참여에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다. 보령시·서천군 선거구인 우리 지역의 정당활동은 민주당의 조이환, 한나라당의 김태흠, 자유선진당의 류근찬, 평화통일가정당의 민승기가 경쟁하였으나 자유선진당의 류근찬이 당선되었다.

2008 . 7. 22 현재 주요정당

번호	정당명 (약칭)	대 표 자	등록 연월일	비고
1	한 나 라 당	박 회 태	'97. 11. 24	
2	민 주 당	정 세 균	'08. 2. 18	
3	자 유 선 진 당	이 회 창	'08. 2. 4	
4	친 박 연 대	서청원·이계택	'07. 10. 2	
5	민 주 노 동 당	천 영 세	'00. 5. 24	
6	창 조 한 국 당	문 국 현	'07. 11. 7	
7	경 제 공 화 당	허 경 영	'07. 10. 29	
8	경 제 통 일 당	안 동 옥	'08. 1. 15	
9	국 제 녹 색 당	이래원·정재복	'07. 8. 8	
10	기 독 사 랑 실 천 당	최 수 환	'04. 3. 26	
11	선 진 한 국 당	장 석 창	'06. 5. 3	
12	자 유 평 화 당	이 태 희	'06. 10. 10	
13	진 보 신 당	이 덕 우	'08. 3. 17	
14	평 화 통 일 당	조 일 벽	'07. 11. 7	
15	화합과 도약을 위한 국민연대	허 술	'07. 11. 19	

○ 우리 지역의 지구당과 충남도당 등록현황

우리 지역의 정당활동은 제3공화국 시절부터 도입된 지구당을 통하여 주로 이루어졌으나 2004년부터 지구당이 폐지되자 충남도당과 지역 당원협의회와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은 2004년 등록된 충남도당과 2004년까지 유지되었던 지구당 현황이다.

충남도당 상황 (2008. 7월 현재)

번호	당 명	대 표 자	등록일자	주 소	비고
1	한 나 라 당	김 태 흠	1997.11.24	대전시 중구 대흥동	
2	민 주 당	양 승 조	2008.02.18	천안시 신부동	
3	자 유 선 진 당	류 근 찬	2008.02.12	대전시 중구 선화동	
4	민 주 노 동 당	김 혜 영	2002.05.27	천안시 성정1동	
5	진 보 신 당	안 병 일	2008.03.20	천안시 성정1동	
6	친 박 연 대	임 창 근	2007.12.13	천안시 문화동	
7	국 제 녹 색 당	안 병 수	2007.06.28	계룡시 두마면	
8	평 화 통 일 당	박 상 운	2007.10.23	논산시 연무읍	

보령시 지구당 등록 일람표

등록 번호	정 당 명	대 표 (등록시)	등록연월일	말 소	
				사 유	연 월 일
1	신민주공화당대전시·보령군지구당	김 용 환	'88. 3. 19	신설합당	'90. 2. 15
2	민주정의당대전시·보령군지구당	이 대 희	'88. 4. 6	신설합당	'90. 2. 15
3	통일민주당대전시·보령지구당	김 경 두	'88. 4. 11	신설합당	'90. 2. 15
4	민주자유당대전시·보령군지구당	김 용 환	'90. 2. 15	신설합당	'97.11. 24
5	공명민주당대전시·보령군지구당	복 영 윤	'90. 7. 16	중앙당등록취소	'92. 3. 30
6	통일국민당대전시·보령군지구당	박 창 규	'92. 2. 6	신설합당	'94. 7. 8
7	민주당대전시·보령군지구당	백 성 남	'92. 3. 5	정당합당(신설합당)	'96. 1. 4
8	신정치개혁당대전·보령지구당	이 문 규	'92. 4. 10	신설합당	'94. 7. 8
9	신민당대전시·보령군지구당	이 문 규	'94. 7. 8	정당법제4조의2제4항	'94.10. 7
10	자유민주연합대전시·보령군지구당	김 용 환	'95. 3. 29	정당합당(신설합당)	'95. 5. 31
11	자유민주연합대전시·보령군지구당	김 용 환	'95. 5. 31	선거구조정, 대표자 변경	'00. 3. 7
12	통합민주당보령시지구당	백 성 남	'95. 12. 21	자진해산신고	'97. 4. 28
13	새정치국민회의보령시지구당	이 춘 동	'97. 5. 13	중앙당흡수합당통지	'00. 1. 25
14	한나라당보령시지구당	신 준 희	'97. 11. 24	선거구조정및위원장교체	'00. 3. 23
15	새천년민주당보령시지구당	이 춘 동	'00. 1. 24	선거구조정및위원장 교체	'00. 3. 20
16	희망의한국신당보령시지구당	김 용 환	'00. 2. 14	선거구조정	'00. 2. 22
17	한국신당보령시·서천군지구당	김 용 환	'00. 2. 22	중앙당자진해산	'01.10. 20
18	자유민주연합보령시·서천군지구당	이 긍 규	'00. 3. 7	대표자 사직	'01. 2. 14

760 • 정당

등록 번호	정 당 명	대 표 (등록시)	등록연월일	말 소	
				사 유	연 월 일
19	새천년민주당보령시·서천군지구당	김 명 수	'00. 3. 20	대표자 사직	'04. 2. 3
20	한나라당보령시·서천군지구당	안 홍 렬	'00. 3. 23	대표자 변경	'02. 3. 18
20	한나라당보령시·서천군지구당	김 용 환	'00. 3. 23	대표자 변경	'03. 5. 20
18	자유민주연합보령시·서천군지구당	한 선 교	'01. 2. 14	대표자 변경	'01. 3. 8
21	노년권익보호당보령시·서천군지구당	양 인 복	'02. 5. 6	정당법부칙제7조에의함	'04. 3. 12
18	자유민주연합보령시·서천군지구당	김 익 수	'02. 5. 10	대표자 변경	'03. 7. 8
22	국민당보령시·서천군지구당	한 상 은	'02. 6. 26	중앙당창준위소멸	'02. 7. 23
23	천주평화통일가정당보령시·서천군지구당	신 동 국	'03. 5. 9	정당법부칙제7조에의함	'04. 3. 12
20	한나라당보령시·서천군지구당	김 락 기	'03. 5. 20	정당법부칙제7조에의함	'04. 3. 12
18	자유민주연합보령시·서천군지구당	류 근 찬	'03. 7. 8	정당법부칙제7조에의함	'04. 3. 12
24	개혁국민정당보령시·서천군지구당	이 근 호	'03. 8. 19	정당법부칙제7조에의함	'04. 3. 12
25	열린우리당보령시·서천군지구당	이 정 학	'04. 2. 17	정당법부칙제7조에의함	'04. 3. 12